

비즈 프리즘 | 롯데그룹, 글로벌 경영 속도 붙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김교현 롯데화학BU장, 조윤제 주미대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왼쪽부터 시계방향)이 롯데의 사업 현황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

신동빈 회장, 국내 재계 최초 트럼프 면담

“미국 3조6000억 원 대형 투자에 감사”
트럼프, 백악관 초청에 협력방안 논의
화학·호텔 등 대미투자 급물살 탈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이하 현지시간) 국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 백악관 외관 서쪽 출입구에 캐딜락 승합차로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30여 분의 면담을 가졌다. 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는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조윤제 주미대사, 김교현 롯데화학BU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등이 배석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에게 9일 준공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석유화학단지의 에탄크래커 공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고 이 공장 생산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사업 현황과 함께 2015년 인수한 롯데뉴욕펠리스 호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투자였다. 뉴욕펠리스 호텔은 전통이 있는 훌륭한 건물이니 잘 보존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이어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롯데가 미국에서 진행한 대대적인 투자가 계기가 됐다. 롯데케미칼은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 연간 100만 톤 가량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설비를 갖춘 에탄크래커 공장을 준공했다. 총 사업비

31억 달러(3조6000억 원)로 한국 단일 기업의 대미투자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롯데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에틸렌 40만t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며 화학 분야 외에 호텔 사업 분야에서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 회장과 면담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롯데의 미국 투자를 소개하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트위터에서 “롯데는 루이지애나주에 31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과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는 1991년 롯데상사가 처음 미국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알라배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기지, 뉴욕의 롯데뉴욕펠리스호텔, 미국령 괌의 롯데공항면세점 등을 투자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2015년 인수한 롯데뉴욕펠리스호텔(사진)에 대해 “좋은 투자였다. 전통이 있는 훌륭한 건물이니 잘 보존해 달라”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당부했다. 스포츠동아DB

기아차, 새 글로벌 소형 SUV 외장 렌더링 공개

정통 SUV 재해석...하반기 출시

기아자동차가 소형 SUV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야심작 ‘하이클래스 소형 SUV’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4일 공개했다. 기아차의 새 소형 SUV는 하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인도,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경쟁 모델들과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디자인이다. 소형 SUV의 주요 구매층인 젊은 소비자의 감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컴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했다.

우선 대담한 봉투 스타일과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범퍼 캐릭터 라인이 강조된 전면부가 인상적이다. 볼륨감 있는 펜더와 정교한 리어컴비네이션 램프, 이와 연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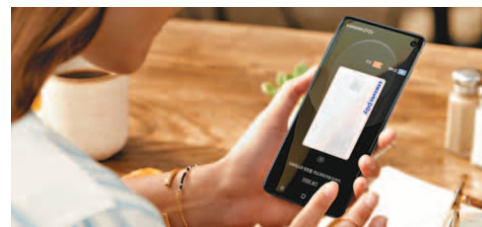
는 테일게이트 가니시를 적용한 후면부도 매력적이다. 전면과 후면을 아우르는 ‘시그니처 라이팅’도 차별화한 디자인 요소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 다이아몬드 패턴, 머플러 형상의 리어 가니시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기존 소형 SUV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주행 성능과 넉넉한 공간을 갖췄으며, 탑승자의 감성적 만족감까지 고려한 첨단 신기술도 대거 탑재했다.

기아차는 새 하이클래스 소형 SUV 출시를 통해 스톤이, 쏘울,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SUV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아자동차는 젊은 소비자의 감성 만족도를 높일 디자인으로 차별화한 ‘하이클래스 소형 SUV’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4일 공개했다. 사진제공 | 기아차



삼성페이 국내 누적결제 40조 원 돌파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출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사진)가 44개월 만에 국내 누적 결제 금액 40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페이는 2018년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금액의 약 80%를 차지했다. 온라인 결제도 증가해 삼성페이 전체 결제 중 약 25%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삼성페이는 그동안 해외 송금과 선불카드, 쇼핑, 교통카드, 멤버십, 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를 선보였고, 우리은행과 협력해 삼성페이 ‘환전’ 서비스도 시작한다.

김병근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4일

코스피지수	2081.84	▲	+2.83
코스닥지수	710.16	▲	+1.36
日 닛케이 지수	2만1067.23	▼	-124.05
中 상하이 종합	2883.61	▼	-20.1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2		0
환율 (원·달러)	1188.0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9524.09	▲	+517.86

박양우 장관, 관광벤처 육성 강조
“지원 아닌 투자 받을 수 있게 할 것”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관광 담당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광벤처 육성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 관광산업에 대해 “소득 증가와 주5일제 근무, 고령화 등으로 국내 관광 규모가 훨씬 커졌다”며 “과거보다 성장하고, 전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관광산업은 녹색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은 복합산업으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광 정책은 사실상 실패”라며 “117조 원 규모로 커진 문화산업에 비해 관광은 그렇지 못해 전통적 기업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벤처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현안으로 외래 방한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도시·지역관광 활성화, 특성과 관광 등 새로운 콘텐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관광상품 접목·융합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고유한 콘텐츠의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네오위즈, ‘기억의 저편’ 정식 출시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는 마인포터가 개발한 모바일 역할수행 게임(RPG) ‘기억의 저편: 오블리비언’(사진)을 국내

구글플레이를 통해 14일 정식 출시했다.

방대한 판타지 세계관과 역사·신화·소설 속 캐릭터가 등장하는 수집형 RPG다. 70여 종의 캐릭터에 고유 일러스트와 영웅별 세계관이 존재해 수집과 육성의 재미가 있다. 전투 난이도에 따른 영웅 조합 등 전략적 재미도 있다. 정식 서비스에는 450여 개의 스테이지와 5종의 이용자인 전투(PVP) 모드를 선보이고, 길드원과 함께 하는 보스 레이드와 실시간 길드전 등을 통한 전투 경험도 제공한다. ‘슬렘캠프’와 ‘새벽의 연화’에서 활약한 일본 인기 성우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정식 서비스를 기념해 ‘7일 미션 이벤트’ 참여는 물론 게임에 접속만 해도 캐릭터 육성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주고, 영웅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